백훈종의 알쓸₿잡 <80>  
  
  
  
사진=연합뉴스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사교육 천국 대한민국지난 주말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이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이다보니 서로 근황을 공유하고 직장과 가정과 관련된 수다를 떠느라 바빴다. 벌써 30대 후반에 접어든 내 나이 또래 친구들과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하다보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육아 관련 주제로 넘어갔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녀석도 있었다. 철없는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가 벌써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니, 격세지감에 놀라는 마음과 존경심, 경외심이 동시에 들었다.자녀를 초등학교까지 진학시킨 친구들은 벌써부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대치동, 목동 등 유명 학원가에서 영어, 수학, 논술 학원 비용이 한달에 얼마고 컴퓨터 코딩 학원은 어디가 좋다더라는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뭐하러 벌써부터 사교육에 돈을 쓰냐고 핀잔을 줬다가 모르는 소리 말라며 된서리 혼이났다. 요즘은 부모가 원해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게 아니라 아이가 먼저 보내달라고 조른다고 한다. 같은 반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다같이 학원으로 몰려가는데 자기만 빠지면 소외감이 든다는 것이다.자녀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들도 교육 걱정은 매 한가지였다. 언어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영어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한달에 2백만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고민이라는 친구도 있었다.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도 초, 중, 고 다니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다가 다 까먹을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큰 돈을 들이냐는 말이 입 안에 멤돌았지만 참아 내뱉지는 못했다. 아이한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만은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이다.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만 5세 때 3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는 가정도 많은데, 특히 서울이 지방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대치동 학원가에는 중,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더 많이 보인다. 자녀가 만 5세 때 사교육비로 연간 지출한 비용이 벌써 300만원이 넘어 생활비를 줄인 부모가 10명 중 5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교육 천국이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이 이토록 성행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이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부모와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년층 대학 진학률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대다수 부모들은 자녀가 적어도 수도권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졸업해야 남은 인생을 윤택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 본인들이 살아오며 쌓은 경험에 입각한 믿음일 것이다.엘리트 대학에 진학하면 다양한 혜택이 따르는것은 사실이다. 주변에 똑똑하고 수준높은 친구들이 생기고, 개인의 능력과 인성을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노출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창 사회생활을 하던 시절처럼 노골적이진 않겠지만 자신과 같은 대학교 출신 후배들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학연, 지연도 여전히 존재한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살아가며 도전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등용문이 크게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대학 교육 자체만 놓고보면 어떨까.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개인의 인격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흔히들 대학교는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아 학교 시설과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교수들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때문에 재정난에 빠져있는데, 이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올해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대학 혁신지원은 전년보다 2091억 원 늘어난 8057억 원이, 전문대학 혁신지원에는 전년보다 1600억 원 늘어난 5620억 원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458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타낼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정부 지원금을 더 타낼 수 있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교수들이 연구저술 건수에 목을 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많은 연구저술을 진행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타낼 수 있다.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등록비는 못올리고 저출산 여파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수는 줄어드니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관심이 없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대학 교육 4년만 가지고는 사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온 세계가 AI가 불러온 급격한 생산성 혁신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대학은 과연 AI를 지배하는 수준높은 인간을 배출하고 있을까. 적어도 대학의 관심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있는 동안에는 무리일 것이라 보는게 타당하다.  
  
  
  
 비트코이너들의 자녀 교육그렇다면 자녀의 윤택한 미래를 위해 대학 진학이 필수라는 고정관념은 깨져야 옳다. 신기하게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선택하려는 노력은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이미 유행처럼 번져있다. 아마도 비트코인의 에토스(Ethos)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낮은 시간선호’ 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대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는 행동이다.지난 5월 비트코인 2023 컨퍼런스에서 다니엘 프린스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비트코인을 주제로 다루는 ‘원스 비튼(Once BITten)’ 팟캐스트의 호스트이자 저서 ‘인생을 선택하라(Choose Life)’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있는데, 모두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홈스쿨링을 하며 온 가족이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는 중이라고 한다. 마이애미 컨퍼런스에도 온 가족이 함께 참가했는데, 나는 유독 밝고 활달한 다니엘의 자녀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한번은 이제 11살이라는 다니엘의 막내 아들과 길게 대화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과 나누는 대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단순히 내가 묻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는게 아니라 나와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세계 여행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을 막힘없이 이야기 했으며 나는 어떤일을 하는지, 또 무슨 이유로 마이애미에 오게됐는지 궁금해했다. 어른대 아이가 아니라 남자대 남자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랄까. 자녀가 어릴때부터 온 가족이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고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대체하는것의 결과가 이정도라면 나도 당장 그렇게 하고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다니엘 프린스의 저서 제목처럼 인생은 선택이다. 반드시 짜여진 공식이나 정해진 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행복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반드시 좋은 대학 진학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게다가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능력치를 떨어트리는 길이라면 더욱 그렇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총 발행개수가 정해진 비트코인처럼 인생에 주어진 시간도 유한하다.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즘처럼 직업이 다양해진 세상에서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떤 교육이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요즘 부모들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아직 비트코인을 모르는 부모라면 이제라도 비트코인의 에토스인 낮은 시간선호에 대해 공부해보면 좋다. 현실에 굴복하고 편한 길을 찾는 대신 미래를 위해 현재에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자 "웹3.0 사용설명서"의 저자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잇츠미쿡]● 해임 위협 받는 ‘금융 경찰’ SEC 수장● 美 의회에서 벌어진 이더리움 공방● 민주당, 크립토 정부 개입 찬성● 바이든, 겐슬러 해임 가능성 희박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미지. [동아DB]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지속적으로 해임 압박을 받고 있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촉진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독립기구다. 1929년 미국 증시 폭락 이후 금융 감독 강화 차원에서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기구로 설립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는 SEC의 위원장이 의회로부터 해임 압력을 받게 된 건 그가 ‘암호화폐(크립토)의 적’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4월 18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암호화폐 규제가 안건이던 이날 청문회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출석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패트릭 매켄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겐슬러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크립토 업계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으면서 지나친 규제로 관련 산업이 미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같은 당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SEC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겐슬러 위원장을 쫓아내는 해임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수용할 수 없고, 법에도 어긋나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를 강요하고, 크립토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면서 옭아맸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였다.데이비슨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내에서 크립토 규제 법안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소위원회(Subcommittee on Digital Assets, Financial Technology and Inclusion) 부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장에 최대한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는 쪽이고, 공화당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SEC 수장을 해임하는 법안까지 등장한 건 이례적이다.  
  
  
  
4월 18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클린턴 정부 때 재무부 차관으로 공직 입문겐슬러 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1년 4월 연방상원 인준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SEC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5년이다. 그는 골드만삭스 임원, 재무부 관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를 거쳐 SEC 위원장에 올랐다. SEC, CFTC, MIT 웹사이트에는 그의 이력이 대부분 공개돼 있다.1957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그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골드만삭스에 취직했다. 18년 정도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인수합병(M&A)부터 외환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골드만삭스 시절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MBA) 과정도 마쳤다.공직 생활을 시작한 건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재무부 차관이 되면서다. 2001년엔 연방상원 금융위원장이던 민주당 폴 사바네스 의원의 선임보좌관(senior advisor)을 맡아 엔론 회계부정 사태 이후 기업의 회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바네스-옥슬리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CFTC 위원장이 됐다. 2014년까지 이 직책을 맡아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 이행을 감독하고, 파생상품 시장 규제에 핵심 역할을 했다. 2016년 대통령선거 때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선거캠프 최고재무책임자로 합류했다.2018년엔 MIT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글로벌경제 및 경영 실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MIT 미디어랩의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에서 수석 고문을 맡았다.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강의를 한 게 바로 이때다.월스트리트 경력과 재무부 차관, 상원 금융위원장 보좌관, CFTC 위원장, 힐러리 클린턴 대선캠프 최고재무책임자, 그리고 MIT 블록체인 교수. 바이든 정권 출범과 함께 그가 SEC 위원장 1순위로 검토된 건 이런 이력 때문이었다.암호화폐 업계에서 겐슬러에 대해 특히 비판적인 그룹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통상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지칭하는 말) 진영이다. 겐슬러는 지난해 6월 CNBC 인터뷰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토큰(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그는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크립토 산업 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옹호해 왔다. 거래소를 비롯한 크립토 업체들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들을 거래하는 ‘카지노’에 비유했다.겐슬러는 MIT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 가을학기 강의(Primary Markets, ICOs & Venture Capital, Part 2)에서 알트코인 대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나는 2014년 이더리움을 판매했을 때 이더리움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믿는다. 하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말은 증권이라는 것이다(Ethereum, when it was first promoted in 2014, I believe, passed this test. And the word ‘passed’ means that you are a security).”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유래된 하위 테스트를 보면 ‘돈이 투자되고, 투자금이 공통의 사업체에 쓰이며, 타인의 노력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증권에 포함되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다. 겐슬러에 따르면 2014년 이더리움의 ICO가 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겐슬러는 2022년 9월 이더리움이 거래 검증 방식을 지분증명 방식(Proof-of-Stake)으로 바꾼 직후 “지분증명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는 투자계약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지분증명 거래 검증은 블록체인 거래 검증과 보안 강화를 위해 토큰(이더리움의 경우 이더)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담보로 예치하고 특정한 컴퓨터 거래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대가로 해당 토큰을 이자처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더를 포함해 지분증명 블록체인 토큰들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된다는 게 겐슬러의 말이었다.SEC는 2월 9일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 상품 제공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SEC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거래 규모 세계 3위인 크라켄(Kraken)이 SEC에 3000만 달러 벌금을 내면서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당일이었다.거래소 반발은 이더리움 때문?SEC 동영상에 출연한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를 포함한 크립토 업체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에 의해 투자자 정보제공 등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식을 대중에게 판매해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 상장하게 되면 SEC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으면서 회사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처럼,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겐슬러 동영상의 주요 타깃은 알트코인 대표 이더(eth)로 추정됐다. 이더 32개 이상을 담보로 예치하고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된 고성능 컴퓨터로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개인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참여해 보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 때문에 미국 최대 규모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도 개인 고객들의 코인을 모아 스테이킹에 참여하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수익을 올려왔다.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서비스 수수료로 거둔 매출은 2020년 1000만 달러에서 2021년 2억2300만 달러, 지난해에는 2억7500만 달러로 크게 뛰어올랐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21년 4월 이후 스테이킹 서비스 매출이 급증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는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다.코인베이스는 3월 22일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받았다. 웰스노티스는 SEC가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불법 금융거래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다. 코인베이스 회사 측이 블로그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코인들 일부와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통지했다.코인베이스 측은 “크라켄처럼 SEC에 벌금을 내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접는 식으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법정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참고로 웰스노티스 명칭은 1972년 당시 SEC가 단속과 규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에서 유래했다. 코넬대 법학전문대학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당시 SEC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권고한 해당 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존 웰스(John Wells)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이더가 증권인지 아닌지 밝히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SEC의 규제를 비판하는 크립토 업계 관련자들은 정치권에 강력하게 로비해 왔다. 이더를 비롯한 여러 알트코인도 증권으로 규제해선 안 되며,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증권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에서 지나치게 규제하면 크립토 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위협도 했다. 이런 로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언급한 4월 19일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매켄리 위원장은 “이더가 증권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겐슬러를 몰아붙였다. 크립토 업계에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알트코인 대표 이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겐슬러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홍보한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도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서 대중이 수익을 기대한다. 해당 프로젝트 쪽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우리(SEC)에게 변호사들을 보낸다. 그런 것에서 대중이 수익을 기대한다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데이비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SEC 조직을 개편해 위원장 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겐슬러를 해임하는 법안’이었다. SEC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는 총 5명의 SEC 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회는 SEC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특정한 위원을 해임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전부다. SEC는 대통령이나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 SEC 조직을 개편해 위원장을 없애는 일종의 ‘꼼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SEC 위원을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위원장을 포함해 5년 임기가 보장된 SEC 위원을 중도 해임할 방법은 딱 하나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SEC 위원 같은 독립기관 수장을 ‘비효율, 직무태만, 부정행위(inefficiency, neglect of duty, and malfeasance in office)’ 등의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해임 절차가 쉬운 건 아니다. 해임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타당한 사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 공직자인 만큼 명분이 없으면 해임하기 쉽지 않다.2008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이 규제기관인 SEC에도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ABC 뉴스는 2008년 9월 19일 기사에서 “SEC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지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2021년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인 매너스, 레브 메넌드 교수는 미국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과 관련해 쓴 논문에서, 법으로 정해진 독립기관 수장의 임기는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겐슬러 위원장 해임 요구가 커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에서 겐슬러 해임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상원을 넘기는 어렵다.비트코인엔 우호적, 알트코인에 적대적?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을 거래해온 크립토 업체들에 적대적인 입장을 밝혀온 겐슬러 위원장. 그가 여러 차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언급하면서 겐슬러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숨은 비트코이너’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겐슬러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4월 하원 청문회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내가 보유한 증권은 모두 증권업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겐슬러는 MIT 교수 시절 2018년 가을학기 강의 ‘블록체인과 머니 개론(Introduction for Blockchain and Money)’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비트코인은 거품이기 때문에 소멸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진영을 비트코인 미니멀리스트,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진영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구분했다. 그는 “고백하자면, 나는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중도 미니멀리스트(a little bit center minimalist on Bitcoin)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MIT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해당 강의 전체를 보면 겐슬러는 ‘비트코인이 거품이어서 소멸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기존 금융권의 견제로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겐슬러는 비트코인의 친구도 아닌 셈이다.금융경찰 SEC 수장으로 바이든 정권의 크립토 규제 선봉에 서 있는 겐슬러. 알트코인에 적대적인 동시에 비트코인의 친구도 아닌 그는 계속해서 바이든의 신임을 받으며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될까. 아니면 크립토 업계와 공화당 측의 압박으로 흔들리게 될까. 적어도 단기적 크립토의 미래는 겐슬러의 운명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백훈종의 알쓸₿잡 <79>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앱스토어에서 삭제되는 다무스다무스(Damus)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윌리엄 카사린(William Casarin)과 그의 팀이 만든 모바일 앱 기반 SNS 서비스다. 언뜻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존 SNS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서비스는 사실 노스트르 기반 앱이다. 노스트르는 “Notes and Other Stuff Transmitted by Relays”(릴레이를 통한 단문 및 기타 자료의 전달)의 약자로 쉽게 설명하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간에 단문 메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SNS 서비스가 배라면 프로토콜은 모든 배들이 떠있는 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스트르는 그 자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 표준 규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다무스는 노스트르 기반 SNS 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애플 아이폰 전용 앱이다.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이 프로젝트 초창기에 14 BTC(약 5억원)을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첫날에만 무려 4만 5천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그 이후로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는 다르게 그 어떤 형태의 콘텐츠 검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일반 사용자들간에 비트코인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프라이버시와 탈중앙성을 중요시하는 전 세계의 비트코이너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다.그런데 지난달, 애플이 돌연 다무스 앱을 iOS 앱 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내놨다. 자사 가이드라인 3.1.1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애플의 가이드라인 3.1.1은 아이폰 사용자가 앱 내에서 유료 기능을 이용하거나 잠겨있는 콘텐츠를 열기위해 비용을 결제할때는 무조건 ‘인앱 결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아이폰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할때, 게임 플레이 중 아이템을 구매할때, 또는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애플이 결제 대상자가 되며, 본인의 iOS 계정에 미리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된다.애플은 다무스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나 다른 사용자를 대상으로 곧장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는 ‘잽(Zap)’이라는 기능이 ‘인앱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있다. 다무스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포스팅에 ‘잽’을 보내는 것은 잠긴 콘텐츠를 열기 위함이 아니라 공감을 표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애플이 근거로 든 3.1.1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팁이나 기부를 하려는 목적인 경우, 인앱 구매 이외의 메커니즘으로 보낼 수 있다"는 예외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다무스는 어쨋든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팅 하단의 번개모양 버튼을 없애 콘텐츠별로 ‘잽’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사용자 프로필에 직접 들어가야만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앱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애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다무스가 끝내 애플 iOS의 인앱 결제 도입을 거부한다면 조만간 앱스토어에서 다무스 앱은 삭제될 예정이다. 다무스의 ‘잽’ 기능이란?‘잽’은 다무스를 여타 다른 SNS와 구별하는 핵심 기능중 하나다. 다무스 앱이 만들어진 토대인 노스트르는 기본적으로 P2P 네트워크다. 이곳에는 고객 계정과 콘텐츠들을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없다. 모든 콘텐츠와 데이터는 ‘릴레이’라고 불리는 사용자 개개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누구든 자유롭게 텍스트나 이미지를 올릴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보니 광고도 없고 스팸 메시지도 없다. 바로 여기서 ‘잽’ 기능이 중요해진다.플랫폼 기반 SNS에서 플랫폼 운영사와 크리에이터의 직접적인 수익원은 광고다. 플랫폼 운영사는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하여 돈을 벌고,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는 운영사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다무스에는 광고를 유치하는 운영사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영리 활동도 P2P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무스 사용자들은 피드를 보다가 특정 콘텐츠에 공감이 가면 번개모양의 ‘잽’ 버튼을 눌러 아주 소액의 비트코인을 후원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돈 100원도 거의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다.100원씩 후원받아서 언제 의미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0명을 넘기 전까지는 아예 광고 수익이 나지 않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1만명 이상은 되어야 협찬 광고가 들어온다. 다무스에서 받는 비트코인 후원은 비록 건별로 보면 소액이긴 하지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처음부터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다무스에서 ‘잽’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콘텐츠에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좋아요’ 버튼보다 ‘잽’이 선호될 정도다. 현재 노스트르에서 ‘잽’을 통해 오가는 비트코인은 하루에 140 BTC, 원화 가치로 약 56억 원에 달한다. ‘잽’은 기존 SNS에 좋아요나 댓글 남기기보다 훨씬 강력한 ‘피드백 루프’ 형성 방식이다. 콘텐츠 소비자가는 콘텐츠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금액으로 표현하면, 크리에이터는 후원받은 금액 덕분에 더 큰 동기부여가 일어나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크리에이터와 소비자간 직접적인 가치의 맞교환이 일어나는 방식을 ‘Value 4 Value(V4V)’ 경제라 한다.  
  
  
  
백훈종 샌드뱅크 COO 애플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플랫폼 운영사가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사용자간에 직접 가치의 맞교환이 일어나는 ‘V4V 모델’ 사용 사례는 이미 다양하다. 팟캐스트, 음악 스트리밍, 동영상 제작, 블로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용자간 상호소통 성격을 지닌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잘 성장하고 있던 V4V 서비스 생태계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애플이 자사 제품에서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인앱 결제 사용만 강요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30%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료 수익 때문이다. 참고로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에게 청구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공식 구독료는 부가세 포함 10,450원인데, 아이폰에서 결제하면 14,000원이다. 애플이 3,5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셈이다. 특별한 서비스도 아니고 결제 수수료일 뿐인데 30%라니 지나칠 정도로 높다.애플의 생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당연히 취약계층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은행 계좌나 페이팔 계정조차 없지만 다무스와 비트코인 덕분에 전 세계를 무대로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무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단 개도국 국민들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무명이라 음원 수입이 없는 인디 가수, 아직 시청자가 적어 수익이 없는 동영상 크리에이터, 해외에서 의뢰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디지털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다. 애플 인앱 결제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수입이 줄거나 아예 활동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원래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남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막고 통행세까지 받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발전했다. V4V 서비스 생태계는 이러한 현실의 반작용이다. 중간자가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지하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유일한 탈중앙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은 금상첨화다. 국경을 초월해 금액에 상관없이 즉각적인 V4V 결제를 가능케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전세계로 확장되며, 크리에이터는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어 광고 수입에 목을매는 대신 자신만의 독립적인 수익원을 구축할 수 있다.결국, 애플의 다무스 앱 삭제 조치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독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다. 인터넷은 자유롭게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애플같은 특정 기업이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비트코인을 활용한 V4V 서비스는 플랫폼 권력을 분산시키고 인터넷을 다시 자유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다.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정보와 그에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인터넷. 이것이 원래 인터넷의 탄생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이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이 장벽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자 "웹3.0 사용설명서"의 저자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삼부토건 3세인 조성연씨가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중인 비트코와 MOU를 체결했습니다.비트코는 조성연씨 등 3인과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삼부토건이 이 프로젝트의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비트코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프로제와 엔블루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베트남 국영기업인 프로트레이드와 공동으로 현지 조인트 벤처설립을 추진중입니다.조성연씨는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인 조남옥씨의 셋째 아들로 현재 삼부토건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조씨 등은 이번 MOU를 계기로 개인자격으로 지분투자도 검토중이며 향후 비트코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조씨 등은 또 12월초 구성되는 비트코 컨소시엄에서 건설부문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한편 비트코는 지난달 1일 베트남 호치민시 북쪽 빈증성 산업단지 내에 250ha 규모의 경마장 리조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조인트벤처 설립계약을 빈증시 정부와 체결한 바 있으며 내년 2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TV를 통한 관심종목 조회 및 주식매매 서비스(데이터방송)>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FTX는 우크라 사용자 25$ 지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전세계적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후원하고, 탈중앙화자율모임(DAO)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인 지원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우크라 지원하자" 407억원 가상자산 모금 2일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업체 일립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정부군을 지원하는 시민단체(NGO)에 모금된 가상자산은 3380만달러(약 407억35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위터에 기부처로 올려놓은 전자지갑 주소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트론(TRON) 폴카닷(DOT) 등 2160만달러(약 260억3232만원)가 모였다. 주요 기부자로는 △폴카닷 설립자 개빈 우드(580만달러, 약 69억9016만원) △줄리안 어산지 석방운동을 위해 마련된 NFT 판매기금(186만달러, 약 22억4167만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만달러(약 2억 4108만원) 가치의 크립토펑크 NFT(#5364)도 우크라이나 정부 이더리움 계정으로 송금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전세계적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후원하거나 탈중앙화자율모임(DAO)를 만들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6일(현지시간) 키예프의 한 거리에서 불타는 군용 트럭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2022.02.26.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정부군 지원 NGO '컴백얼라이브' 소유 전자지갑에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30분까지 총 28.73 BTC(약 111만209.79달러, 13억3513만원)이 모였다. FTX는 우크라 사용자 25달러 지원 우크라이나 기부금 모금에 '기업 조직의 미래'라고 불리는 DAO도 동원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활동으로 유명한 나디야 톨로코니코바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DAO'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플레저DAO와 트리피랩스가 함께 하며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기부할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더리음 블록체인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로 1만개의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발행해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FTX 사용자들에게 25달러(2406원)씩을 지급한다"며 "세계에는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 "평화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선 푸틴의 결정에 화가 치솟는다"며 "푸틴의 침공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샘 뱅크맨-프리드 FTX 창업자/사진=fnDB 글로벌 가상자산 셀럽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FTX 사용자들에게 25달러(약 2406원)씩을 지급한다"며 "세계에는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출신으로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트위터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선 푸틴의 결정에 화가 치솟는다"며 "푸틴의 침공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부테린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를 따라 1999년에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 #우크라이나 #가상자산- 베트남 국영기업과 합작사 설립 조인식 개최- 매출액 내년 2000억원, 2012년 1조원 이상 기대[이데일리 피용익기자] 프로제(023430)와 월드조인트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비트코(VITCO)는 베트남 최초의 경마장 건설을 위해 1300억원을 투자, 오는 2012년 경마장 리조트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병준 비트코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트남 국영기업 프로트레이드(Protrade)와 합작사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비트코는 이번 합작사 설립을 통해 베트남 빈증성 지역 4200헥타르에 경마장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곳에는 경마장 외에도 고급 빌라,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를 위해 2012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경마장을 우선 건설하고, 이어 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고급 빌라와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다. 비트코는 베트남 경마장 리조트에서 내년초부터 운영되는 장외 베팅시스템을 통해 연간 2000억원의 매출액과 300억~4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마장 트랙이 개장하는 2012년부터는 1조원 이상의 매출액과 7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는 "베트남 정부 각 부처의 합의를 거쳐 연내에 정식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경마장 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사업단지 개발을 위한 라이센스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인식에는 김 대표 외에도 누겐 반 민 프로트레이드 회장, 트란 반 로이 빈증성정부 부의장, 팜 티엔 반 주한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했다.   
  
  
  
▲ 비트코의 베트남 경마장 조감도＜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피용익 (yoniki@)"우크라 지원 111만$ BTC모금…코인기부 받아달라"DAO 활용해 후원 모금도...프라이드·부테린도 러 비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전세계적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후원하거나 탈중앙화자율모임(DAO)를 만들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기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다.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셀럽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러시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 지원 111만$ BTC모금…코인기부 받아달라" 25일 오후 3시30분 현재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업체 블록체인닷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 '컴백얼라이브(Come Back Alive)' 소유 전자지갑에 총 28.73 BTC(약 111만209.79달러, 13억3513만원)이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5BTC(약 15만6533.70달러, 1억8818만원)이 지갑 외부로 전송됐다. 컴백얼라이브는 24일(현지시간) 하루동안 370번의 개인 기부를 받았으며 평균 금액은 1000~2000달러(약 120만1600~240만3200원) 수준이었다고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보도했다.   
  
  
  
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인 컴백얼라이브(Come Back Alive) 소유 전자지갑에 총 28.73 BTC(약 111만209.79달러, 13억3513만원)이 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있는 독립광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대형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컴백얼라이브는 지난 2021년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고조되며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모금 활동을 해왔다. 당시 지원금 규모는 한달에 5000달러(약 600만8000원) 미만이었는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 22일 이후 지원금이 급증했다. 디크립트는 우크라이나 단체들이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부터 크라우드펀딩 전술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마이단 혁명은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해 발생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은 결국 당시 시위로 붕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대에 기부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가상자산을 기부방식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트위터 상의 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 사용자들이 우크이나 정부의 트위터 계정에 몰려가 가상자산으로 기부하는 것을 수락해달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사용자는 "가상자산 기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부도 고려를 해달라"고 썼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법상 다른 결제 시스템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후원 모금에 DAO도 등장...프라이드·부테린도 러시아 비판 우크라이나 기부금 모금에 '기업 조직의 미래'라고 불리는 DAO도 동원됐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활동으로 유명한 나디야 톨로코니코바(Nadya Tolokonnikova)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DAO'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플레저DAO와 트리피랩스가 함께 하며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기부할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더리음 블록체인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로 1만개의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를 발행해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DAO를 이끌고 있는 나디야 톨로코니코바는 모스크바 출신의 페미니스트 펑크 록 그룹 푸시 라이엇 창립멤버로 유명하다.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릴라 공연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레저DAO는 자선활동을 통해 문화적으로 중요한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DAO로 알려져 있다. 톨로코니코바는 디크립트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부끄러울때 우크라이나인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기부할 기금을 모으는 것"이라 밝혔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사진)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FTX 사용자들에게 25달러(2406원)씩을 지급한다"며 "세계에는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fnDB 글로벌 가상자산 셀럽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FTX 사용자들에게 25달러(2406원)씩을 지급한다"며 "세계에는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 "평화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선 푸틴의 결정에 화가 치솟는다"며 "푸틴의 침공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부테린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를 따라 1999년에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후원 #우크라이나 #가상자산 #DAO백훈종의 알쓸₿잡 <77>  
  
  
  
행사장 앞에서 거행된 '법정화폐의 장례식' 이벤트. 출처=Peruvian Bull 트위터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마이애미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5월의 중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3’에 다녀왔다. 원래는 굳이 직접 참가할 의향은 없었으나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것을 바꾸었다. 국내 한 거래소에서 개최한 작은 행사에 참여한 날이었다. 그곳에서 한 유명 크립토 업계 인플루언서를 만났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그는 작년에 참가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거의 배나온 아저씨들로 가득 찼다며, 젊은 개발자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 언급했다. 이더리움쪽의 대표 행사인 ‘이드콘’은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노후한 느낌이 강하고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동안 내가 상상해왔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다. 그래서 결정했다.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것이다. 나의 마이애미 여행은 그렇게 다소 충동적으로 결정으로 인해 시작됐다.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사우스비치 해변이 있는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호텔에서 출발한 우버가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나의 눈길은 자동으로 작년에 입구 앞에 전시되어 있던 거대한 로보트 황소상을 찾았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올해는 황소상이 보이지 않았다. 침체되어있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최측도 예산을 줄여야만 했을까.비록 황소는 없었지만 고집스런 비트코인 애호가들을 만족시키며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는 행사 다운 센스는 곳곳에서 돋보였다. 예를 들어, 행사장 입구에는 황소상 대신 "곰들은 환영하지 않음(Bears, not welcomed!)"이라는 표지판이 방문객들을 맞았다.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그리 깊지 않은 ‘곰’들은 이 표지판이 시키는대로 올해는 그들이 사는 굴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행사를 주최한 비트코인 매거진은 사상 최대 인원인 26,000명이 참석했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참석자 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작년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에 컨퍼런스가 열렸다.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번 기업, 전문 투자자, 일반 사람들 수가 늘어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면 어디든 몰려들었다. 세레나 윌리엄스와 같은 유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석했으며, 부대 행사에서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이 직접 공연을 선보였다.하지만 13개월의 시간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작년 컨퍼런스의 주요 스폰서 중 한 곳이던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는 파산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들이 후원을 줄이자, 컨퍼런스의 규모와 부대 행사도 줄어들었다.미국에선 내내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보다 한 달 앞서 열린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행사 ‘컨센서스(Consensus)’에서는 참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참가 기업들조차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직접 홍보하지 못했다. 규제 당국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너무 도드라진 행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나카모토 스테이지’라 불리는 주요 연사들이 등장하는 무대는 어두운 조명과 테크노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마이애미 도심의 유명 클럽을 방불케 했다. 이곳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공개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의 연설은 이 거대한 공간을 만원 관중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는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케네디 주니어의 모든 말 한마디에 청중들은 환호를 터뜨렸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지하는 근본적인 가치인 자유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설정했다.“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나는 평생을 자유를 지지하며 살아왔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자유를 구현하고 보장하는 도구다.”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비트코이너들 앞에서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3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의 세부적인 출처를 정부에 보고하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직은 그의 무대 앞에 모인 12,000여명의 청중이 그를 대통령 자리까지 이끌어줄 힘이 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숫자가 12만명으로, 그리고 120만명으로 불어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다.  
  
  
  
행사장은 비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참가자들의 의류와 액세서리로 물들었다. 2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큰 비트코인 풍선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콘홀 게임 (약 450g의 옥수수가루가 든 주머니를 약 8미터 떨어진 보드에 던져 구멍에 넣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에 참여해 비트코인 상금을 얻는 등, 다들 각자의 방식대로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재미와 볼거리가 가득한 행사장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었다.‘엑스포 홀’에는 다양한 전시품들과 기업 부스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특히 입구에 자리한 영화 ‘백투더 퓨처’에서 등장하는 1981년식 드로리안 DMC-12 자동차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동차의 계기판에는 비트코인의 첫 블록이 생성된 날짜, 비트코인으로 첫 피자 구매가 이루어진 2010년 5월 22일, 그리고 현재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계기판에 적힌 날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런 행복한 꿈의 가격이 반영되었는지, 행사 기간동안 진행된 이 차량의 경매가는 무려 30만 달러(약 3억 9천만원)까지 치솟았다.행사장 곳곳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길만한 이벤트들이 펼쳐졌다. 첫날 아침에는 예고없이 행사장 앞 도로에 나타난 운구차가 한대가 행사 참가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는 동안 장례식 복장을 입은 한무리의 사람들이 커다란 관을 차에서 내려놓았다. 관 속에는 달러 지폐 뭉치들과 “#FiatFuneral(법정화폐 장례식)"이라는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이내 나타난 4인조 여성 합창단이 관 옆에 서서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성자의 행진)"이라는 감동적인 가스펠 곡을 열창했다.노래가 끝난 후 관은 마치 진짜 장례식 절차가 진행되듯 천천히 행사장 안으로 옮겨졌다. 어렵사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는 한동안 행사장 입구 앞에 전시되어 관람객들을 맞았다. 밖에서 열띤 합창을 하던 여성들은 "Hallelujah Bitcoin(할렐루야 비트코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함께 관 옆에 함께 자리했다. 이 장면은 비트코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임에서나 쓰이는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언젠가 정말로 달러를 대체하고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분별한 돈풀기로 화폐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중앙은행에 보내는 경고이기도 했다.엑스포 홀 한편에는 ‘비트코인 미술품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비트코인 주제의 창작물을 전시하고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공간이었다. 히토미 마츠이(Hitomi Matsui)라는 예술가는 이곳에 비트코인 테마의 맥도날드 레스토랑을 만들어 전시했다. 관람객들은 그녀가 지난 6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가짜 빅맥, 해피밀 장난감, 음료 등을 비트코인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히토미의 드라이브쓰루’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때마다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Meme)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주변 지인의 비트코인 투자를 만류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을 조롱할때 “가서 맥도날드에서 일이나 해라”라는 표현을 쓴다. 위험한 투자를 계속하면 재산을 탕진하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게된다는 걱정을 내포한 말이다.히토미의 전시품은 일부러 가격을 실제 맥도날드에서 파는 제품보다 비싸게 책정하여, 오히려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갈수록 가난해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비트코인 맥도날드에서 케첩 한 팩은 0.00055 BTC로 약 15 달러, 해피밀 세트는 0.013 BTC로 무려 350달러에 달했다. 갈수록 구매력이 하락하는 법정화폐 때문에 점점 맥도날드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프랙탈인크립트(FractalEncrypt)’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예술가는 7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타임체인 코덱스’를 전시했다. 코덱스는 인쇄되지 않고 사람 손으로 씌여진 옛날 책을 말한다. 나무와 거울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책은 마치 소설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암호로 가득한 중세시대 유물처럼, 비트코인의 코드에 사용된 수학 공식들과 암호들이 곳곳에 들어있었다.평균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며 누구도 이 공식을 바꿀 수 없는 비트코인은 시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1시간은 144 블록, 1주일은 1,008 블록, 1개월은 4,380 블록, 그리고 1년은 52,560 블록으로 환산된다. 타임체인 코덱스 표지에 들어간 톱니바퀴 장치는 마치 24시간 기준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처럼 비트코인 블록으로 표현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평소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이 아니라 ‘타임체인’이라고 자주 표현하는 마이클 세일러가 행사장에서 이 예술품을 보고 매우 좋아했으며, 그날 저녁 예술가를 자신의 마이애미 집으로 초대하여 직접 코덱스를 구매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중세시대 유물처럼 생긴 비트코인 코덱스. 출처=FractalEncrypt 트위터 디지털 르네상스의 무대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가 아니다. 이곳은 정치,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진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이 행사를 찾는다. 때문에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암호화폐 행사라기 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14세기 후반 유럽 국가들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문화계에 큰 변혁이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세상의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내가 경험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의 축약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 암호화폐 밋업, 행사, 컨퍼런스와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넘어, 그것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 심지어는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나이많고 배나온 아저씨들만 거드름 피우며 활보하는 그저그런 암호화폐 행사가 아니다. 사실 비트코이너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 때문에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몸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오디널스와 BRC-20, 라이트닝 네트워크 등 확장성 프로토콜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찾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창업가들도 많았다.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얻은 교훈은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의 장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디지털 르네상스의 무대'다. 그리고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자들이다.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자 "웹3.0 사용설명서"의 저자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비트코(대표 권재규)는 길이 조정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손전등인 'X-스틱'을 개발했다.이 제품은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봉을 몸체 내부에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평소에는 손전등으로 쓰다가 비상 시에 이 봉을 길게 빼내면 교통안전신호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특히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사용해 연색성과 밝기가 뛰어나고 전구 수명도 길다. 몸체에는 3개 다리도 장착돼 있다. 이를 펼치면 높이 조절이 가능해 평지에 두고 위쪽이나 측면으로 조명을 쏠 수 있다.비트코 관계자는 "몸체 다리에 고정해 이 손전등을 측면 방향으로 비춰두면 갓길에서 차량 점검 시 안전삼각대 구실을 할 수도 있다"며 "레저나 운동, 산행, 작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몸체 다리가 없는 소형 제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 제품은 다리가 없는 대신 자석을 장착해 강철이나 차량에 부착해 두고 쓸 수 있다. 현재 비트코는 국내 경찰서나 소방서, 한국도로공사 등에 관급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특허 등록도 마쳐 실용성과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다. (042)629-5723 [서진우 기자][매일경제 핫뉴스] • 평생 묻어두고 싶은 주식 베스트 15선은• 준중형-중형車 경계 허문다• 이건희 회장, 이광재 지사 만난 이유는?• 대학교수 동성 학생 `성추행`…경찰 조사 중• [Hello! 증시] 잠자는 `7공주` 펄떡이는 `4대 천왕株`[ⓒ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비트코인 ETF에 발길…관련주도 관심시장 상황 우호적…경계심은 유지해야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콧대 높은 미국 시장 데뷔에 성공하면서 그간 실체 없는 투기적 자산으로 치부되던 가상화폐의 입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비트코인 ETF 출시로 국내외 주식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종목 및 상품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더불어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두루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계기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바빠졌다. 이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종목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상장을 신호탄으로 향후 비트코인 연계 상품에 유의미한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상장 이슈가 미국 증시에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을 들어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서학개미, ETF 상장 첫날 160억 거래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첫 ETF인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종목코드는 BITO·비토)'가 첫 거래를 시작했다.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토의 상장 첫날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한 6개 증권사(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한 금액은 161억원으로 집계됐다.증권가에서는 첫 거래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이 적지 않다며 비토를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막 상장한 만큼 유의미한 거래량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비트코인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관련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미뤄보면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미국선 가상화폐 관련주 '쪽집게' 등장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미국에선 서학개미들이 눈여겨볼 만한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콕 집어 주는 금융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대표 은행 중 하나로, 이달 초 디지털자산연구팀을 신설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행보가 가장 적극적이다.BoA는 가상화폐 시장을 △운용 시스템 역할을 하는 토큰 △중개자 없는 분산형 어플리케이션(DApps) △법정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국가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페 △코인 창작자와 팬을 연결해주는 대체 불가능(NFTs)한 토큰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분류했다.디지털 자산 대표주로는 테슬라와 함께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페이팔(PayPal)을 비롯해 코인베이스(Coinbase),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그니처뱅크(Signature Bank), JP모건(JP Morgan Chase),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SVB 파이낸셜 그룹(SVB Financial) 등을 제시했다.이에 더해 지난 18일 가상화폐 관련 종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여기에는 테슬라를 비롯해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트위터(Twitter) △엔비디아 △AMD(Advanced Micro Devices) △TSMC(Taiwan Semiconductor)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 23개 상장사들이 새롭게 추가됐다.알케시 샤 BoA 글로벌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 전략총괄은 "가상화폐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새로운 투자군을 형성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2조달러(약 2355조원)로 이를 간과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시장 상황 우호적…경계심은 필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성공적인 데뷔로 가상화폐 시장에는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향후 비트코인 실물을 담고 있는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ETF는 인베스코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를 비롯해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등 총 9개다. 이들 상품은 모두 늦어도 연말까지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건스탠리는 세계 최대 규모 비트코인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rayscale Bitcoin Trust·GBTC)'에 대한 투자금을 올 들어 50%가량 늘렸다.은퇴자산을 관리하는 탓에 가상화폐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해외 연기금들도 점차 투자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과 미국 뉴저지주의 공통 연기금 D(New Jersey's Common Pension Fund D) 등은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 블록체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시가총액 규모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돼 가고 있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 실물 ETF의 상장까지 승인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단 비트코인 ETF나 가상화폐 관련주 투자에 있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ETF로의 자금 유입만으로 향후 성과를 예단하기 힘들고 상장 이슈 등이 이미 일부 종목에 선반영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규제 리스크도 무시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ETF 자금 유입이 실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가격 측면에서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ETF 상장 이슈가 선반영된 만큼 차익실현 욕구가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또 "글로벌 전력난이 부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전력 소모가 큰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ETF시장 데뷔에 비트코인값 최고치비트코인 거래소 투자종목 주가 고공행진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콧대 높은 미국 시장 데뷔에 성공하면서 그간 실체 없는 투기적 자산으로 치부되던 가상화폐의 입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비트코인 ETF 출시로 국내외 주식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종목 및 상품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더불어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두루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계기로 사실상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뜨거운 투자 열기를 실감하고 있다. 개당 가격이 6만6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 불어났다. 미국 대표 기업인 페이스북(9500억달러)과 테슬라(8700억달러) 등을 제치고 시총 규모로 세계 8번째 자산으로 당당히 올라선 것이다.이 같은 상승세에 관련주들도 덩달아 고공행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가격 상승에 거래량까지 동반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의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비트코인 가격, 지붕 뚫고 급등 중22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0일 비트코인은 개당 6만6909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는 지난 4월13일 기록한 6만3152달러다. 같은 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8175만원까지 치솟으며 국내 역대 최고가(4월14일, 8199만원)에 근접했다.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 미국 첫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종목코드 BITO·비토)는 상장 이틀만에 거래 대금이 1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데뷔하자마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몸소 확인하고 있다. 비토의 상장을 기점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활약은 본격화된다. 비토에 이어 반에크(VanEck)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고 오는 25일부터 거래가 시작할 예정이다. 글로벌 채권운용사인 핌코(Pimco)도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비토는 그간 높은 가격 및 변동성, 재무적·사회적 부담 등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투자 수단(Vehicle)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비토를 시작으로 발키리(Valkyrie)와 반에크 등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들이 차례로 승인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실물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가상화폐거래소 관련주 '웃음꽃'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덩달아 오름세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이다. 통상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가상화폐 거래도 함께 증가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지트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위지트는 자회사인 티사이언티픽이 국내 2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같은 날 비덴트도 전 거래일 대비 16.67% 급등한 1만3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로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0.23%, 34.22%씩 보유하고 있다.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관련 종목들도 줄줄이 상승했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이날 우리기술투자는 전날보다 2.27% 오른 1만1250원, 한화투자증권은 1.39% 상승한 5830원으로 마감했다. 우리기술투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7.63%)을 보유하고 있고, 한화투자증권은 6.15%를 갖고 있다.여기에 펀드 간접투자를 통해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티넘인베스트, TS인베스트먼트도 각각 1.07%, 6.54%씩 올랐다.증권가 "비트코인 강세 더 간다"금융투자업계에선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된 만큼 추가 상승 랠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미국에서 선물 ETF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기존의 도박성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식, 부동산처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실제 미국의 헤지펀드나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등이 투자에 나서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의 헤지(hedge) 수단으로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염 이사는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과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美 SEC,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운용사, 만들까 말까…당국 눈치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콧대 높은 미국 시장 데뷔에 성공하면서 그간 실체 없는 투기적 자산으로 치부되던 가상화폐의 입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비트코인 ETF 출시로 국내외 주식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종목 및 상품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더불어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두루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미국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돼 성공적인 첫 거래를 마친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언제 등장할지에 있다.그러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내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ETF 상품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미국 첫 비트코인 ETF 데뷔 성공비트코인 ETF는 8년에 걸친 상장 시도 끝에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빗장을 열고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미국 ETF 전문 운용사 프로셰어즈(ProShares)의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종목코드 BITO·비토)'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ETF는 미국에서 상장된 첫 비트코인 관련 ETF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종한다.BITO는 상장 첫날인 지난 19일 시가 40.88달러로 출발해 장중 42.15달러까지 치솟는 등 시종일관 상승세를 보인 끝에 41.9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률은 4.85%에 달했다. 둘째 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에도 BITO는 기세를 이어가며 전 거래일 대비 3.20% 오른 43.28달러로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오후 6만6000달러(약 7750만원)를 돌파하는 등 지난 4월 사상 최고가였던 6만4899달러(약 7630만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첫 거래를 시작하자 비트코인 현물과 함께 동반 상승할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쏠린 영향이다. 운용사들은 '눈치보기'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고 이를 계기로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전고점을 돌파하자 국내 자산운용업계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타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내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자 가능 유가증권인지에 대해서 법적 정의를 내려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내 운용사들이 우회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선물을 편입해 펀드 등으로 만들어 내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나 이 역시 불발된 상황이다. 실제 최근 일부 운용사는 ETF가 아닌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펀드 출시를 검토했으나 당국의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으로 인정돼 통상적으로 CME의 비트코인 선물 역시 국내 상품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앞서 일부 국내 선물사들이 당국에 미국 비트코인 선물 상품 활용에 대한 의뢰를 했으나 금융당국은 해당 파생상품은 선물중개 대상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일각에선 국내 운용사에서 미국에 상장한 비토 같은 해외 ETF를 재간접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해당 상품 출시에 나설 운용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한 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운용사들도 관련 상품 개발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품 승인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요지부동의 자세라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푸념했다.당국 "큰 틀에서 규제 먼저 만들어야"업계의 이런 반응에도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파급력이 큰 만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큰 틀에서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먼저 상품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규제를 사전에 촘촘히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트코인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장 미국에서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편입하기보다는 해외 비트코인 상품의 경과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ETF 상품 개발과 출시 등을 지원하는 한국거래소는 "국내에선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제 막 당국에서 논의가 시작된 상황으로, 아직 비트코인은 법적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거나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정의가 먼저 마련된 뒤에 상품 상장 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19일 미국서 첫 거래…상장시도 8년만업계 "현물 투자 ETF 출시도 시간문제"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콧대 높은 미국 시장 데뷔에 성공하면서 그간 실체 없는 투기적 자산으로 치부되던 가상화폐의 입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비트코인 ETF 출시로 국내외 주식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종목 및 상품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더불어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두루 점검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오랜 기다림 끝에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 비트코인 ETF가 첫 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아직 초창기인 가상화폐와 제도권 금융 연계 산업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 등장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가상화폐가 어엿한 대체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가상화폐 시장, 역사적 '전환점'19일 CNBC와 야후 파이낸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ETF 전문 운용사 프로셰어즈(ProShares)의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종목코드는 BITO·비토)'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9일부터 첫 거래를 시작한다. 비토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ETF 출시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SEC가 잠정적 승인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비토가 예정대로 거래를 시작하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의 창업자인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 형제가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시도한 지 무려 8년 만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마이클 사피어 프로셰어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수년간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2021년은 미국 시장 최초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연계 ETF가 등장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상품 '봇물' 전망…현물 ETF 기대감도  비토 출시를 계기로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먼트(Valkyrie Investment)와 인베스코(Invesco) 등 여러 운용사에서 SEC에 상품 출시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 취임 이후 SEC에서 비트코인 관련 ETF를 꾸준히 승인하고 있고, 현재는 대형 운용사인 피델리티(Fidelity)와 아크(Ark) 등이 신청한 20건 이상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겐슬러 위원장은 블록체인 강의를 했을 정도로 관련 산업에 친화적인데다 최근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비트코인 선물 ETF가 투자자들에게 선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투자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가의 방향성에 따라 펀드 성과가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현물 시세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다.이에 미국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세계 최대 규모 비트코인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rayscale Bitcoin Trust·GBTC)'을 ETF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서를 SEC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기준 GBTC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규모는 387억달러로, 한화로 약 45조7200억원에 달한다.국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승인을 거절당했던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를 시작하게 된 만큼 첫 현물 투자 ETF 출시도 근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선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편입에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면서 "현물 ETF 출시도 결국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백훈종의 알쓸₿잡 <70>  
  
  
  
  
  
  
  
3월 27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 3회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지난 3월 23일~24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라이트닝콘(Lightningcon)’ 행사에 다녀왔다. 라이트닝콘은 베트남과 캐나다에 기반을 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결제 서비스인 뉴트론페이(Neutron Pay)와 베트남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거래소인 ‘비트코인 베트남(Bitcoin VN)’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빛의 속도로 빠르게 전송해주는 레이어 2 기술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였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개발자들과 사업가들은 이틀간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들도 꽤 많이 참석했다.우선 행사장에 많은 한국인들이 보인점이 놀라웠다. 물론 베트남 다낭은 한국에서 유명한 휴양지이고 지리적으로 그리 멀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문하기 좋은 여건이긴 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작은 규모의, 그것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아직은 생소한 기술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줄은 몰랐다. 역시 한국인들은 선진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앞서나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라이트닝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면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졌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레이어 3 프로토콜인 ‘타로(TARO)’의 개발사로 유명한 ‘라이트닝 랩스(Lightning Labs)’의 엘리자베스 스타크(Elizabeth Stark) CEO를 비롯하여,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피터 토드(Peter Todd)와 지미 송(Jimmy Song), 그리고 본인 이름을 딴 팟캐스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비트코이너들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스테판 리베라(Stephan Livera) 등이다.전문가 토론과 발표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주제는 역시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은행 시스템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버게이트 은행, SVB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이 뱅크런으로 인해 연달아 문을 닫으며 소위 ‘트리플 S 사태’라는 별명을 얻은 이번 은행 사태는 물론 미 연준이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긴급 구제에 나서며 빠르게 진화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의 은행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라이트닝 랩스의 엘리자베스 스타크 CEO는 패널 발표에서 “비트코인은 한때 은행들에게 위험한 자산으로 취급되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은행들이 비트코인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논평했다.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어떠한 대내외 이벤트에도 흔들림없이 유지되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작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휘청거리는 은행 시스템의 취약한 면을 비판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스타크 '라이트닝 랩스' CEO의 발표 무대 / 출처: Leo Weese 트위터라이트닝콘은 약 100여명 안팎의 인원이 참석한 소규모 컨퍼런스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참가자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행사가 진행된 푸라마 리조트(Furama Resort)에서 숙식도 함께 해결했는데, 덕분에 행사 외 시간에도 오며가며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시장 동향과 규제 문제에 대한 정보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미 송에게 배운 비트코이너 라이프지미 송(Jimmy Song)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유명인사다. 오래전부터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비트코인 코드 개발에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로그래밍 비트코인(Programming Bitcoin), 마이 리틀 비트코인 북(My Little Bitcoin Book)등 비트코인 공부에 유용한 인기 서적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지미 송은 행사 마지막날 진행된 ‘비트코인과 선과 악의 대결’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확신(Conviction)’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것을 선하다, 또는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를 편협한 생각속에 가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무엇이든 어떤 의견도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아닐한 생각에 갇히는 것이야말로 아무런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전했다.그는 한국 이민자 출신으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부분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낸 인물이다. 동양인 외모를 가졌지만, 텍사스 거주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카우보이 모자, 가죽 벨트와 가죽 부츠를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확신에 찬 어조로 강한 발언을 하여 이슈가 되곤 한다. 라이트닝콘 행사장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독특한 스타일과 과거의 공격적인 발언들로 인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그러나 행사 기간 동안 그와 여러 차례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그동안의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유명 비트코인 개발자 지미 송 / 출처: 코인데스크그는 여러 면에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다.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섯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과 늘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었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설파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형적인 비트코이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와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비트코너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라이트닝 노드 운영의 장점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처럼 묻는 말이 있었다. “안녕! 네가 운영하는 노드의 알리아스(Alias)는 뭐니?”. 알리아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라이트닝 노드에 부여한 닉네임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행사 답게 참가자들 중에는 직접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본인이 운영하는 노드의 알리아스를 서로 공유하는 이유는 나중에 서로 채널을 열기 위해서다. 채널은 일종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라 생각하면 된다. 비트코인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동안 거쳐가는 톨게이트가 바로 채널이다.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날때 비용을 납부해야 하듯이 비트코인도 채널들을 지날때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바로 이 수수료가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셈이다. 물론 현재 개인이 라이트닝 노드를 운영하며 유의미한 수익을 얻는기는 어렵다. 라이트닝 노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입하여 새로운 채널을 열어야 비트코인이 더 자주 지나다니게 되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늘릴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노드 기기는 마치 서버를 관리하듯 꾸준히 돌봐주어야 문제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있을 수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등 집중해야 할 일상생활이 있다면 아무래도 24시간 신경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채널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여는것이 효율적으로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중에 하나다. 채널에 투입할 비트코인 수량이나 채널 수수료 등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트닝 노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더 잘 작동하게 된다. 아는 사람들과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이 생물을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이번 라이트닝콘에는 일본에서 대규모 라이트닝 노드 커뮤니티인 ‘다이아몬드 핸즈(Diamond Hands)’를 운영하는 한 비트코이너도 참여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노드 운영에 대한 귀중한 노하우도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서로 한국과 일본의 라이트닝 노드 운영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협업을 해보기로 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규모 (Capacity)가 어떻게 빠르게 확장하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 다낭에 싹튼 비트코인 해변 운동이번 라이트닝콘의 메인 아젠다는 ‘왜 비트코인이 동남아시아에 꼭 필요한가’ 였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는 빈곤층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직도 많다. 이들이 가난을 벗어나려면 비트코인을 지금부터라도 꼭 알고 공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행사 참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비트코인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것은 분명하다. 원래부터 어려웠던 경제 상황에 화폐 구매력 하락과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더욱 살기 힘들어진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역할이다. 비록 지금은 가격이 전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지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희소성을 기반으로 다른 재화들 대비 상대적 가치가 오르는 특성이 있는 ‘경화’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다시 돈 풀기를 시작하면 그 전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베트남에는 이미 수많은 모바일 핀테크 앱이 공존하고 있다. 다낭 시내에 있는 식당이나 식료품점에 가보면 카운터에 기본적으로 3~4개의 서로 다른 결제용 QR 코드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사용에 익숙한 베트남 국민들인 만큼, ‘월렛오브사토시', ‘블루월렛' 등 비트코인 전용 지갑 앱을 사용는 법도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핀테크 앱들을 이용할때 소득의 일부분이라도 좋으니 비트코인으로 바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부분이다. 비트코인을 저축수단으로 활용하면 꼭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예금이자를 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과 상관없이 하드코딩 된 코드에 따라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고 블록 생성자에게 정해진 비트코인 보상이 주어지는 ‘number go up technology (숫자 상승 기술)’이다.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다. 은행 계좌에 돈을 예금해놓고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이자만 받는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다행히 베트남에도 엘살바도르에서 불었던 것과 비슷한 ‘비트코인 해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라이트닝콘을 계기로 베트남 다낭에 있는 유명 숙박 시설과 식당들 중 일부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로 했다고 들었다. 이를 발판삼아 베트남이 제 2의 엘살바도르로 발돋움하길 기우너해 본다. 베트남과 동남아시아가 불안한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방법은 이제부터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자 "웹3.0 사용설명서"의 저자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백훈종의 알쓸₿잡 <73>  
  
  
  
사진=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은 그 제목처럼 분노에 찬 인물들을 그려낸다.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로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스티븐 연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 대니는 철없는 남동생과 함께 살며, 수리 기사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일상에서 많은 불만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기에게만 몰리는 것 같다. 어느 날 대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을 나오던 중 흰색 SUV 차량과 시비가 붙는다. 상대방 운전자가 지나치게 길게 경적을 울리며 도발하는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도심 추격 레이스가 벌어진다.  
  
  
  
흰색 SUV의 운전자는 바로 여자 주인공 에이미다. 그녀는 잘 나가는 남편, 귀여운 딸과 함께 부유한 동네의 큰 저택에 살며 성공한 사업까지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말 안 듣는 딸, 지나치게 의존적인 남편,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뿐이다. 그녀는 어서 사업을 매각하고 번 돈으로 평범한 가정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짜증이 나던 와중에 마트 주차장에서 낡은 픽업 트럭과 시비가 붙는데, 그 차량은 바로 대니의 차였다.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이 두 주인공의 도심에서 벌어지는 보복 운전 레이스를 계기로 다양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그들의 인생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을 그린다. 이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인간들이 왜 분노하는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지, 왜 가난할 때 불행한지, 그리고 단순히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21세기 지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일까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화날 일이 많은 세상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모든 불만의 원인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드라마 ‘성난 사람들’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원인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소통 부족: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면 소통이 줄어들고, 오히려 가상 세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해심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쉽게 느끼게 된다.경쟁 사회: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축적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불만을 느끼고 화를 내기 쉽다.기대치의 상승: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며, 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대니와 에이미의 예에서도 두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정신적 고통: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이 물질적인 고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이미의 경우,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불행을 느끼고 있다.인간관계의 부재: 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가족, 친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지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분노를 쉽게 느낄 수 있다.이렇듯 현대인들의 분노와 불만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물론 현대 사회의 이러한 특성들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어둡고 힘든 시대의 경험들과 비교해보면 문제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고있다. 누군가에게는 SNS가 단절시킨 세상과의 교감, 주변의 지나친 기대로 인한 압박,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행복의 의미 등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것과 비슷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해하면서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마인드셋나 역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에 마주친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많고 참을 수 없을만큼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화난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억지로 참는다기 보다는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있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과거에는 화도 자주내고 스트레스가 심할때는 폭음도 했었다. 좀 더 정확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까지 말이다. 비트코인은 14년 전에 등장한 암호화폐의 한 종류일 뿐이지만 그것을 둘러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이 칼럼을 통해 자주 이야기하는 ‘낮은 시간선호 (Low-time preference)’를 삶의 기본 태도로 장착하는 것이다. 낮은 시간선호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나를 위해서 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 고민이 들때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낮은 시간선호의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비트코이너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일반인들과 사뭇 다르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아래 8가지 정도다.소통과 이해 강화: 언제나 대면 소통의 기회를 적극 찾는다. SNS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손짓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는 이해심과 공감 능력을 키우며 이를 통해 작은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적절한 기대치 설정: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다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선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줄인다.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강화: 현대 사회에서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가족, 친구와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린다.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 성장을 위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대신 건강한 경쟁을 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믿는다.가치관의 다양성 인정: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선호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자기 성찰과 마음챙김 실천: 개인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스트레스와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고, 마음챙김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낸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화와 불만을 줄인다.교육과 문화의 역할: 교육과 문화 콘텐츠는 사회적 가치와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있다.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과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하는데 기쁨을 느끼며 그것이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긍정적 사고 방식 활용: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작은 문제와 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는 토대임을 알고있다.‘비트코인 마인드셋’은 현대인들의 분노와 불만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잘 설명해준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비트코이너들이 낮은 시간선호를 토대로 실행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따라해보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 드라마 '성난 사람들'을 보며 새삼 깨닫게된 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보며, 다시한번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중한 가치를 알게되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갇기를 기대한다.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자 "웹3.0 사용설명서"의 저자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이데일리 피용익기자] 프로제(023430)는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회사인 비트코(VITCO)를 19억8500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추진해 온 경마장 사업에서도 철수하게 됐다.＜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피용익 (yoniki@)